



臟腑病證

柳 淑 鉉



臟腑病症은 疾病發生의 演變過程을 探求하는 中 臟腑功能의 失調로 生기는 病理 變化이다. 臟腑의 病證은 臟腑生理變化가 臨床에 反映된 不同한 證候이다. 每個臟腑 生理功能 및 病理變化에 根據하여 病證 分辨하는데 이것이 곧 臟腑辨證이다. 臨床의 辨證方法은 씩 많은데 各其 자기의 特點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正確히 病證의 部位性質을 辨明하고 또 治療를 指導하려면 반드시 모두다 臟腑에 落實해야한다. 그러므로 臟腑辨證은 辨證하고 施治하는 核心이다. 臟腑는 人體를 構成한 밀접히 연계가 있는 正氣의 하나로서 五臟之間에는 生克乘侮의 관계가 있고 臟腑之間에 서로 表裏로 되는 연계가 있다. 그러므로 臟腑辨證을 進行할 때 반드시 整體觀念으로부터 出發하여 一臟一腑의 病理變化를 考慮할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臟腑間의 연계와 影響을 主意해야 한다. 이렇게 되야만 病變의 全面을 장악할 수 있고 主要矛盾을 잡을 수 있다. 經絡은 人體의 五臟六腑, 四肢百骸, 五官九竅, 皮肉筋脈等を 하나의 有機的 統一된 整體로 聯結한다. 그러므로 臟腑의 病證은 또 十二經脈과 密接히 相關된다. 때문에 臟腑의 病證은 應當 經脈의 循行部位와 연계하고 綜合 分析해야 한다. 氣血津液과 臟腑의 관계도 十分 密接하다. 氣血津液은 臟腑의 化生, 輸布하고 또 臟腑의 正常的인 生理活動을 進行한다. 臟腑의 病變이 발생되면 氣血津液의 化生과 輸布에 影響이 있을 수 있고 氣血津液의 病變도 臟腑功能活動에 影響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氣血津液의 病變은 臟腑의 病變을 떠나 孤立的으로 存在할 수 없다.

病證은 氣血津液에 관계될 뿐 아니라 또 經絡과 密接히 相關된다. 물론 錯綜複雜하나 其證候의 性質을 歸納하면 여전히 八綱辨證의 範圍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臟腑의 辨證은 또 반드시 八綱辨證 基礎로 하여 分析과 研究를 進行하여야 全面的으로 病證의 本質을 認識할 수 있다. 아래에 肺系, 心系, 脾胃系, 肝膽系, 腎系等 臟腑의 病證範圍, 證治分類와 要點을 分述한다.

1. 病證

肺는 主氣하고 呼吸을 맡는다. 그러므로 肺의 病理表現은 主要로 氣機出入昇降이 失常되는 것이다. 肺는 코에서 開竅하여 皮毛와 外合하는데 폐는 오양한 臟腑이기에 寒熱에 견디지 못하므로 外邪의 感受와 瘵蟲의 侵襲은 대개 먼저 肺에 侵犯한다. 肺氣는 잘 宣降하는데 만약 肺氣가 邪에 의해 壅閉되면 宣降이 不利하여 늘상 咳嗽로 表現된다. 심하면 喘息한다. 肺는 百脈을 向하여 心이 治節을 主管하는 것을 돕고 血液의 運行을 管理하고 調節시킨다. 만일 肺氣가 失調되면 心血의 運行이 不利하여 胸悶, 胸痛, 咯血이 發生된다. 肺는 水道를 通調하고 膀胱에 下輸하는 功能이 있는데 만약 肺氣가 不降하고 通調가 不利하게 되면 水液이 猪留하게 되어 水腫과 小便이 不利한 것이 發生한다. 肺와 大腸은 서로 表裏로 된다. 大腸은 傳導를 책임지었는데 肺氣의 下降에 붙어 排泄하고 通達한다. 그렇지 않고 大腸이 積滯되어 不通하게 되면 역시 肺의 肅降에 影響될 수 있다. 肺의 病證은 邪實과 正虛로 나눈다.

- 邪實 : 혹은 寒肺 혹은 熱壅 또는 痰阻인데 多數가 居住에 不愼하여 寒暖이 失調되고 外邪가 感受되어 所致된다. 예컨대 外感이 낫지 않고 오래되면 內傷으로 轉移되어 精氣가 自衰되거나 肺氣가 결핍하거나 肺陰이 耗傷된다. 만약 肺虛로 輸津慈腎을 하지 못하면 肺腎의 陰虧로 表現된다. 만약 脾虛로 精을 헤치지 못하면 그로

■ 臟腑病證

인해 肺는 虛하게 되는데 表現은 肺脾가 모두 虛한 것이다. 만약 情志가 鬱結되고 肝鬱이 火로 변하여 肺에 上犯되면 또 肝火가 肺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表現된다. 臨床에서 대개 나타나는 肺系의 病證은 感冒, 咳嗽, 哮喘, 肺癰, 肺痿, 咳血, 衄血 등이 있다.

[實證]

(1) 寒邪가 外感되어 肺氣가 不宣하다. 寒飲이 內阻되어 肺의 清肅이 소실된다. 風寒에 外束된 者는 惡寒 發熱하고 頭痛身痛하여 汗이 없고 코가 막히고 맑은 콧물을 흘리며 咳嗽하는데 痰은 稀薄하고 苔가 薄白하여 脈이 浮緊하다. 寒飲이 內阻된 者는 咳嗽가 빈번하고 극렬하며 숨이 가쁘고 몸이 무겁고 痰白은 거품과 같고 침과 같으며 痰量은 펍 많고 苔는 白滑하며 脈이 弦滑한 症狀이 나타난다. 宣肺散寒 溫化痰飲 하여야 한다.

● 處方 : 麻黃湯. 小青龍湯. 葛根湯 등을 쓴다.

(2) 風熱의 上受로 因하거나 寒鬱化熱로 因하여 熱邪가 쌓여 痰熱이 內積되고 肺의 清肅이 잃어진다. : 風熱이 肺에 侵犯된 者는 咳嗽하고 一般的으로 痰量이 많지 않으며 黃色이거나 黃白色이 相兼되고 質은 그리 끈끈하지 않으며 비린내와 구린내가 없거나 코가 막히고 膿涕가 흐르고 또는 惡風身熱하고 咽喉疼痛하고 苔가 薄黃하며 脈이 浮數한 症狀이 나타난다.

痰熱이 肺에 쌓인 者는 大量의 누르특특한 痰을 咳吐하고 또는 비린내와 구린내가 나거나 膿血이 섞여 나오거나 喘逆痰鳴하는데 咳하면 胸痛하고 번갈증이나며 大便이 乾燥하고 小便이 赤澀하며 舌質이 붉고 苔가 黃燥하며 脈이 滑數한 症狀을 볼 수 있다. 消風清血 또는 清肺化痰 하여야 한다.

- 處方 : 桑菊飲, 銀翹散 또는 清金化痰湯, 葶苈湯 등이다.

(3) 대개 外邪의 感受로 因하거나 咳喘이 오래되어 肺가 津液을 輸布하지 못하고 停聚되어 痰濕이 되거나 脾氣가 素虛되어 濕이 멩쳐 痰으로 形成되고 肺에 上漬되어 所致된다. 痰濕阻肺된 者는 咳嗽하고 끈끈하고 특특한 痰이 많으며, 白色 또는 灰白色이고 呼吸이 急迫하며 苔가 희고 두껍고 미끈하며 脈이 濡滑한 症狀이 나타난다. 水飲이 肺에 잠복된 者는 咳嗽氣喘하고 목구멍에 痰이 끓는 소리가 있으며, 胸脅이 팽팽하고 疼痛하며 누워있을 수 없고, 苔膩하고 黃色이며, 脈이 弦滑하거나 빠른 증상이 나타난다. 燥濕化痰 또는 瀉肺 遂陰 하여야한다.

- 處方 : 二陳湯, 平胃散 또는 葶藶大棗瀉肺湯, 控涎丹 等이다.

[虛證]

(1) 燥邪의 外感으로 因해 肺津이 損傷되어 所致된다. 또 風溫의 여러 邪에 津液이 상하고 津液이 말라서 생기거나 癆蟲이 肺에 侵襲으로 因해 오래간 咳嗽하여 肺를 傷하고 氣血이 毀損되어 肺陰이 不足되고 虛熱이 內生하며 肺金이 損傷된다.

肺에 燥邪가 침범되어 肺의 清潤이 소실되면 기침에 사래들고 氣逆되며 끈끈한 가래가 있거나 血絲가 딸리고 입술과 코가 건조하며 목구멍이 메마르게 아프고 간질간질하거나 微寒, 身熱, 鼻寒等이 동반하는 表證이 있고 苔가 薄白하거나 薄黃하며 마르고 변두리가 붉고 脈이 들뜨며 빠르거나 잣고 잘며 빠른 증상이 있다. 肺陰이 결핍하여 虛熱이 內灼하면 기침 질고 痰이 적거나 피가 석이며 목선 소리하며, 오후는 불이 붉고 潮熱盜汗하며, 몸이 여위고 舌質이 붉으며 苔가 적고 脈이 잘며 빠른 증상이 나타난다. 清肺潤燥 또는 滋陰潤

■ 臟腑病證

肺 식혀야 한다.

- 處方 : 桑香湯, 清燥救肺湯 또는 百合固金湯, 沙蔘麥冬湯 등이다.

(2) 肺氣虧虛

勞傷이 過度하고 病後에 元氣가 恢復되지 못하였거나 오래간 咳喘하여 肺氣가 耗傷되었거나 氣의 化生不足으로 因해 主氣의 功能이 減弱하여 일어난다. 咳嗽하고 숨이 가쁘며 피곤맥진하고 말하기 싫어하며, 聲音이 低怯하고 面色이 윤기가 적으며 畏寒形寒하거나 自汗이 있고 舌淡苔薄白하며 脈이 虛弱하다. 補益肺氣. 補氣血한다.

- 處方 : 補肺湯 등이다.

[兼證]

(1) 脾虛及肺

남태변당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고 咳嗽하며 痰이 많고 피곤맥진하며 다리가 허덜허덜하고 심하면 얼굴, 四肢가 부어오르며 苔白하고 脈이 濡弱한데 培土生金되게 치료하여 補益肺脾시킨다.

(2) 肺腎陰虧

밤에 기침이 심하고 목구멍이 마르고 입이 건조하며, 허리, 무릎이 시큰하고 맥이 없으며, 움직이면 숨길이急促하고 骨蒸潮熱이 있고 盜汗하며 두 불

이 붉고 遺精하거나 月經이 不調되고 苔가 적으며 혀가 붉고 脈이 細數하다. 滋腎養肺되게 치료한다. 쓰는 藥으로는 六味地黃湯, 生脈散 등이다.

(3) 肝火犯肺

胸脅이 따끔따끔 아프고 급해하며 성을 잘 내고 頭暈目赤이며 燥熱되며 입이 쓰고 咳嗽陳作하는데 심하면 咳血하며 舌紅, 苔薄黃하고 脈이 弦數하다. 清肝瀉肺되게 치료한다.

[證治]

肺는 主氣하는데 맛은 매운 것이 마땅하다. <內經>은 말하기를 “辛生肺” “用辛瀉之”라고 했는데 여기서 “瀉”는 여전히 表邪를 驅散이란 意味이다. 去邪되면 安正되고 肺를 돕는 作用을 일으켜 “生肺”하게 된다. <內經>은 또 말하기를 “肺欲收, 急食酸以收之”, “用酸補之”라고 하였는데 咳喘하면 氣가 위로 올라 呼吸이 빠르게 되어 넉넉히 肺氣를 耗散시킨다. 그러므로 酸으로 肺氣를 補하면 耗散된 氣를 걷어 들일 수 있다.

肺는 嬌臟으로서 清虛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處方을 選擇하는데는 多數가 清經하고 重濁이 아닌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곧 吳鞠痛의 말에 “治上焦如羽, 非輕不舉”의 道理이다.

直接治肺法에서 늘 쓰는 法은 宣肺, 肅肺, 清肺, 瀉肺, 溫肺, 潤肺, 補肺, 斂肺 八法이 있다. 宣肺는 肺衛의 表邪를 疏散시키는 것이고, 肅肺는 肺의 痰火, 清除시키는 것이고, 清肺는, 肺中の 實熱을 清泄시키는 것이고, 瀉肺는 肺中の 痰火와 水濕을 瀉시키는 것인데, 그는 宣肺와 相對로서 宣肺는 發表에 접근되고 瀉肺는 攻裏에 접근된다.

그리고 瀉肺와 肅肺는 輕重과 緩急의 區別에 있다 前者는 特특하게 약을

■ 臟腑病證

쓰고 後者는 比較的 平和하게 약을 쓴다. 溫肺는 肺의 寒飲을 溫化시킨다. 潤肺는 肺의 燥를 潤하게 하고 補肺는 肺氣를 甘溫하여 有利하게 하는것도 있고, 또 肺飲을 甘涼하고 養시키는 것도 있다. 斂肺는 耗散한 肺氣를 거두어 들인다. 以上 八法에서 宣肺, 肅肺, 清肺, 瀉肺는 祛邪에 屬하고 溫肺, 潤肺는 祛邪하는 一面도 있고 扶止의 一面도 있다. 補肺, 斂肺는 모두다 扶止에 屬한다. 臨證時에 많이는 以上 여러 法들을 合하여 應用한다. 例를들면 宣, 肅同用하고 清, 潤同用하며 清, 宣을 同用한다. 또 여러 法을 겹쳐 運用할 수 있다. 예컨대 溫, 清, 宣, 斂을 合用하고 宣, 肅, 清, 潤을 合用하는 等等이다.

間接的으로 肺를 治療하는 法은 五臟의 生克관계를 通하여 治療를 進行하는 것이 있다. 虛證은 補脾, 滋腎하는 治法을 쓸 수 있다. 例컨대 脾肺氣虛한 者는 培土生金法을 쓰고, 肺腎陰虧한 者는 滋補腎陰法을 쓴다. 實證은 瀉肝의 治法을 쓸 수 있다. 例컨대 肝火가 肺에 침범되었으면 清瀉肝火의 法을 쓴다. 또 臟腑의 表裏관계를 通하여 治療를 進行하는 것도 있다. 例컨대 肺經의 實證, 熱證은 瀉大腸시켜 肺熱로 하여금 大腸아래로 排泄시켜 氣를 肅降되게 한다.

肺 證은 病因의 分析으로부터 外感과 內傷인 큰 두 部類로 나눌 수 있다. 外感은 多數가 實證에 屬한다. 그러나 風燥, 瘵蟲은 例外이다. 內傷은 多數가 本虛標實이다. 外感病은 肺衛에 있다. 그러나 어떤 疾病은 傳變하여 其他 臟腑에 언급될 수 있다.

內傷은 主要로 肺에 있는데 또 心, 肝, 脾, 腎과 相關된다. 治療에서 반드시 똑똑하게 寒熱虛實을 분간하고 臟腑之間의 관계를 結合하여 全面的으로 考慮하고 治法과 藥處方을 선택해야 한다.

[大腸病證]

病因大腸은 糟粕의 傳達를 책임지고 다스려 體外로 排出한다. 또 津液을 進

一步로 吸收하는 것을 主管한다. 肺와 大腸은 서로 表와 裏로서 上下相應되고 大腸手陽明의 脈絡에서 肺는 大腸에 屬하며, 肺氣가 肅降되면 大腸腑氣는 暢運하고 出入은 正常的이다. 肺氣가 逆鬱면 大腸腑氣가 壅滯되어 便秘, 腸脹하는 것이 나타나고 大腸이 脾의 統攝을 받고 脾陽이 虛弱하게 되면 대개 腸脹, 便溏하거나 久瀉와 久痢하는 것이 나타나며 脾陽이 不足하여 大腸의 津液이 缺乏하면 대개 便秘, 또는 排便이 不快한 現像이 나타난다. 이외 寒濕 또는 寒熱의 邪가 直接侵入되어 大腸에 붙으면 大腸의 傳導가 失常되거나 溏泄 또는 便陽垢가 있게 된다. 臨床에서 늘 나타나는 大腸의 病證은 便秘, 痢疾, 泄瀉, 腹痛 등이 있다.

(1) 大腸實證

實熱邪가 陽明(胃, 大腸)의 腑에 서로 鬱滯되어 막히고 통하지 못하기에 所致된다. 便秘하여 不通하고 腹痛拒接하고 가슴과 배가 몹시 더부룩하여 가빠하고 편치 않으며, 發熱하고 嘔逆하거나 大便을 보나 通쾌하지 않거나 身熱이 높아 心神이 不安하고 寸소리하며, 舌苔가 黃燥 또는 焦黃하고 芒刺가 일어나며 脈이 沈實有力하다. 清熱導滯하여야 한다.

- 處方 : 承氣湯, 三和湯, 六磨湯 등이다

(2) 大腸濕熱證

多數는 暑濕邪氣의 外感으로 因하였거나 飲食의 不節 또는 食物의 不淨으로 因해 濕熱이 大腸에 蘊結되어 생긴다. 배탈 또는 붉은 곱똥을 싸고 裏急後重하고 肛門이 灼熱하는 것 같고 腹痛, 發熱하고 身重하며 苔가 黃膩하고 脈이 滑數하다. 清化濕熱하여야 한다.

■ 臟腑病證

- 處方：葛根芩連湯 또는 白頭翁湯 등이다.

(3) 大腸虛寒證

多數는 脾腎이 陽虛하거나 苦寒이 過投되어 陽이 傷하였거나 寒邪가 腸間에 直中하여 所致된다. 漉泄 또는 설사가 오래도록 멎지 않고 배가 부르고 때로 아프며, 따뜻하고 누르는 것을 즐기거나 肛門이 아래로 처지거나 四肢가 덥지 못하고 脈이 細弱하며 舌淡하고 苔가 薄白하다. 溫陽散寒하여야 한다.

- 處方：附子理中湯이다.

(4) 大腸病證

大腸의 燥熱로 津液이 耗傷되었거나 脾陰이 不足하여 大腸에 下及되지 않으면 모두다 大腸津虧證이 나타나게 된다. 大便이 굳고 乾燥하여 排出하기 힘이 들고 數日만에 한 번 싸거나 입이 더럽고 목구멍이 타거나 頭昏하고 腹脹하며 舌이 붉고 津이 적으며 苔가 黃燥하고 脈細하다.

- 處方：麻子仁丸 또는 增液承氣湯 등이다.

2. 心系病證

- 病因：心은 血脈과 神明을 主管한다. 그러므로 心의 病理表現은 主要로 血脈運行의 障礙와 精志思維活動의 異常이다. 舌은 心의 竅이고 또 心과 小腸은 서로 表와 裏이다. 그러므로 心熱은 늘 혀끝이 붉은 것으로 反映된다. 例컨대 小腸에 移熱되면 心煩舌瘡하고 小便

이 短赤한 것이 나타난다. 또 心包는 心の 外衛이고 心主를 保護한다. 그러므로 溫邪가 逆傳되면 心包가 받아들인다. 그러나 心本臟의 病은 多數가 內傷으로 일어난다.

例컨대 稟賦가 薄弱하면 臟氣가 虛弱하거나 病後에 失調와 思慮의 過度로 心脾가 傷하면 모두 心陰虛 또는 心陽虛의 病因으로 된다. 心陰虛의 主病은 心血虧耗이고 心陽虛의 主病은 心氣의 不足이다 兩者는 모두 心神이 不安한 것으로 表現된다. 만약 情志가 抑鬱되면 火가 生痰하고 痰火가 上擾되거나 氣가 脈中에 鬱滯되어 血이 엉키고 脈結을 막거나 飲邪가 心陽을 阻礙하거나 熱證과 實證으로 表現된다. 心の 病證은 虛와 實이 있다. 虛證은 氣血의 陰陽이 不足하고 實證은 多數가 火熱痰瘀等邪氣의 侵犯이다. 虛實之間은 항상 서로 겹쳐 나타난다. 心은 主血하고 肺는 主氣한다. 氣는 血을 거느리고 血은 氣를 싣고 운반하여 肺는 百脈을 향한다. 生理功能上에서의 心肺의 密接한 관계는 바로 病理上에서 그들의 相互影響을 決定한다. 肺氣가 弱하고 宗氣의 生成이 不足하면 運血하는데 힘이 없다. 心氣가 不足하고 血의 運行이 不順하면 肺氣의 輸布와 宣降에도 影響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心肺의 氣虛는 항상 呼吸氣息의 異常과 血運障礙로 表現된다. 心은 主血하고 脾는 化血과 統血한다. 脾가 虛하면 生血이 不足하고 統攝이 無權되어 心血虧耗現象이 초래된다. 思慮가 과도하여 心血이 耗傷되어도 脾의 運化와 統血功能에 影響주어 心脾의 虛가 形成된다. 心陽이 腎에 下降하면 腎水가 溫化되고 腎陰이 心에 上濟되어 心火를 길러 心腎이 相交되면 水火가 既濟된다. 만약 腎陰이 不足하면 心火가 獨亢되거나 心火가 上亢되어 腎에 下交하지 못하고 心腎의 陰陽 水失의 協調가 소실되면 心腎이 不交된다. 以上은 또 心과 肺, 脾, 腎之間의 관계다.

臨床에서 늘상 나타나는 心系病證은 心悸, 胸脘, 失眠, 癲狂, 夢遺等이다.

■ 臟腑病證

[虛證]

(1) 心陽虛

多數는 年老하기때문에 臟氣가 虛衰되고 稟賦가 薄弱되었거나 久病體虛하고 暴病으로 陽氣가 耗傷되는 等의 原因으로 所致된다. 心悸, 氣短, 胸悶, 心痛, 舌苔淡白, 脈이 虛하고 無力하거나 結代等이다. 心悸의 特點은 속히 空虛하고 두근거리며 뛰고 움직이면 매우 심하다. 氣短의 表現은 呼吸의 촉박한 것이 덜했다 더했다하고 움직이면 加重하다.

心病은 갑자기 일어나는데 肢冷, 脈이 매우 빠르고 散亂한 것이 동반된다. 심하면 수족과 입술 코가 靑紫하고 暗晦하거나 面色이 蒼白하고 形寒自汗等이 나타난다.

- 處方 : 桂枝에 附子湯을 加하거나 養心湯, 溫心湯等이다.

(2) 心陰虛

多數는 失血된 後 熱病으로 傷陰되거나 思慮와 勞心の 과도로 陰血이 함모된 原因으로 所致되며 또 血의 生化來源의 不足으로 因해 所致된다. 心悸, 心煩, 少寐, 舌質紅苔가 적거나 혀끝이 마르고 붉으며 脈이 細數한다. 그 心悸의 特點은 心悸하고 번열증이 나며 驚惕不安하고 少寐는 多數가 搖動不安이 동반된다. 滋陰養心安神하여야 한다.

- 處方 : 天王補心湯. 四物安神湯等이다.

[實 證]

(1) 痰火內擾

抑鬱되어 不遂한 氣가 火로 되어 津液이 달여져서 痰이 되고 痰火가 속에서 요동하고 심하면 心包를 덮어 버린다. 心悸, 癲狂, 不寐, 舌質이 紅赤하거나 말라 갈라지고 苔가 적고 脈이 活數한 等이다. 心悸의 特點은 時時로 動悸하고 가슴속은 躁動煩熱한다. 癲狂의 特點은 神志疾保하고 말에 條理가 없으며, 심하면 울고 웃는 것이 正常的이 아닌데 마치도 미친 것처럼 그린다. 不寐의 多數는 惡夢이 시끄럽게 소란하여서이다.

- 處方 : 淸心豁瀉火, 礞石滾痰丸等이다.

(2) 飲遏心陽

痰과 飲이 停伏된 것이 가슴에 쌓여 心陽이 阻遏되어 氣의 宣暢이 되지 않는 것을 초래한다. 心悸, 眩暈, 嘔吐, 舌苔百膩, 脈象이 弦滑하거나 沈緊하다. 心悸는 多數가 胸悶이 同伴하고 眩暈은 多數가 구역질을 하고 토하려 하는 것이 同伴되는데 嘔吐하는 것은 모두 痰涎이다. 化飲除痰하여야 한다.

- 處方 : 茯苓甘草湯, 導痰湯 등이다.

(3) 心血瘀阻

多數는 心氣 또는 心陽의 虧虛로 因해 血脈을 溫運할 기운이 없어 氣가 脈中에 停滯되어 血瘀庫阻되고 結道의 調和가 되지 않는다. 心悸怔忡 心胸이 막

■ 臟腑病證

힌 듯 답답하거나 찌르는 듯이 아프고 어깨, 등, 팔의 아픔이 時發時止하며 舌質이 暗紅하거나 瘀斑瘀點, 脈이 細澀하거나 結代한 것이 나타나고 심한 者는 心胸이 暴痛하여 口唇이 靑紫하고 肢厥神昏하며 脈이 없는 것 같다. 活血通絡行痰하여야 한다.

- 處方 : 血府逐瘀湯이다.

[兼 證]

(1) 心虛

面色이 萎黃하고 먹는 것이 적고 피로감이 있고 게으르며, 氣短神怯하고 心悸健忘하며 失眠하고 꿈이 많으며, 婦女는 月經이 不調하고 脈이 細軟하며 苔가 희고 舌炎하다. 治療는 心脾를 補益시키는 것이 마땅하므로 약은 歸脾湯 등을 쓴다.

(2) 心腎不交

虛弱하고 번열증이 나며 잠을 자지 못하고 속이 두근거리며 기억력이 나쁘고 頭暈目眩하고 목이 마르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허리가 시큰시큰하며, 무릎이 나른하고 꿈에 遺精하고 밤에 오줌이 많고 식은땀이 나며, 脈이 細數하고 舌紅하며 苔가 없다. 心腎이 서로 通하게 治療하는 것이 마땅한데 黃運阿膠湯 또는 交泰丸 등을 쓴다.

(3) 心肺氣虛

心悸氣短하고 咳喘胸悶하며 氣盡脈盡하여 게으르고 面色이 광백하거나 暗滯하다. 심하면 口唇이 清紫하고 舌質이 暗紫하거나 紫班이 나타나고 脈이 細弱하다. 心肺를 補益시키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데 方藥은 保元湯류를 쓴다.

[證 治]

氣는 陽에 屬하고 血은 陰에 屬한다. 그러므로 心陽虛는 반드시 心氣虛를 兼하고 心陰虛도 역시 心氣虛를 兼하게 된다. 그러나 心陽虛는 心氣虛보다 重하고 心陰虛는 虛火證候가 생기게 된다. 臨證에서 心陽心陰이 모두 虛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氣와 血이 다 虧한 者는 반드시 兩者를 兼하여 치료해야 한다. 例컨데 甘草湯으로는 陽陰을 調節하고 十全大補湯은 氣와 血을 다 돕는다. 心陽虛와 飲이 心陽을 沮遏한 두 證은 脾陽의 不運과도 관계가 있다. 治療時에는 또 반드시 脾陽을 溫化하고 運行시켜 健脾시키고 養心시켜야 한다. 心陰虛와 痰火가 속에서 요란하는 두 證을 肝腎二經의 虛實과도 관계가 있다. 精血이 虧耗하면 心陽이 亢盛하고 肝膽에 火가 旺盛하면 津이 灼燥되어 痰이 된다. 治療할때는 반드시 整體를 연결하여 處理해야 한다. 心血瘀阻證은 本虛의 基礎上에서 虛로 因해 實이 초래되며, 그리고 언제나 氣滯와 痰濁의 證候가 同伴되는데 前者는 氣滯로 血이 엉킨다. 반드시 行氣를 돕는 藥物을 써야한다. 後者는 痰瘀互阻로서 반드시 化痰하는 藥品을 섞어야 한다. 心臟神, 虛證은 一般的으로 心神安寧을 돕는 藥品을 쓴다. 例를 들면 棗仁柏子仁, 茯神等이다. 實證은 重鎮安神之品을 加하여 쓴다. 例컨데 龍齒, 牡蠣等이다.

■ 臟腑病證

[小腸病證]

小腸은 胃中의 水谷을 가득 접수하여 清濁을 轉輸하는 것을 主管하는데 맑은 것은 各部位로 보내고 흐린 것은 膀胱에 滲入시키고 大腸에 下注시킨다.

小腸의 病은 多數가 飲食失節로 脾胃의 下傳이 損傷되어 일어난다. 그 病氣의 表現은 清濁을 분간 못하고 轉輸가 障礙받는 것이다. 小腸의 經脈絡心은 心과 서로 表裏이다. 그러므로 또 小腸에 移熱될 수 있다. 小腸의 病證은 不同한 虛寒과 實熱이 있다. 小腸의 虛寒은 多數가 脾胃의 損傷에 有關되고 小腸의 實熱은 多數가 心火와 有關된다. 臨床에서 늘상 나타나는 小腸의 病證은 泄瀉, 腹痛, 舌瘡, 尿血 등이 있다.

(1) 小腸虛寒

대개가 음식부절로 비위가 손상되고 소장에 음식이 걸려 생긴 장애이다. 腸鳴泄瀉, 小腹隱痛 喜按, 舌淡 등이다.

- 處方 : 溫通小腸, 오수유탕류이다.

(2) 小腸實熱

多數는 心火가 小腸에 移行되어 所致된다. 心煩失眠, 口舌生瘡, 小便赤澀刺痛하거나 尿血, 苔黃舌紅, 脈이 滑數하다. 清心火, 導熱下行

- 處方 : 導赤散, 涼膈散 등이다.

3. 脾胃系病

[病因]

脾와 胃는 서로 表裏관계로서 脾는 運化와 統血을 主管하고 胃는 받아들인 음식을 腐熟시키는 것을 主管하는데 脾升하면 胃降되고 燥濕이 相濟되어 共同히 水谷의 清濁, 吸收와 輸布를 完成하므로 氣血을 生産하는 源泉이고 後天의 根本이다. 때문에 만약 脾胃의 升降이 失常되면 水谷의 受納, 腐熟, 轉輸等 功能의 障礙가 發生한다. 그리하여 嘔吐, 呃逆, 泄瀉, 腹脹等 病證이 일어난다. 同時에 脾는 健運을 잃고 化源이 衰少하고 臟腑의 經絡, 四肢의 百骸는 滋養을 잃지 않는 것이 없다. 脾氣가 虛弱하여 氣가 攝血하지 못하고 血이 經絡에 돌아가지 못하면 여기로부터 血證이 생긴다. 脾의 轉輸가 소실되어 水津이 正常적으로 꺼리지 못하고 水濕이 停聚된 것이 陰腫이다.

脾胃에 病이 있으면 其他 臟腑에 影響을 줄 수 있고 其他 臟腑에 病이 있으면 脾胃에도 影響을 줄 수 있다. 其中 肝腎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脾는 後의 本이고 腎은 先天의 本으로서 서로 滋養, 使用한다. 脾虛되어 化源이 衰少되면 五臟의 精이 적어지고 腎은 所臟된 것을 상실하게 된다. 腎虛하여 陽氣가 衰弱하면 脾의 溫熱이 소실되고 建化가 失職된다. 肝은 脾를 따라 升하고 膽은 胃를 따라 降하는데 肝木疏土되면 그의 運化의 功能을 돕고 脾土營木은 그의 疏泄에 使用되며 肝氣가 늘 허한 틈을 타서 침범하므로 胃痛과 腹痛等이 항상 發生한다.

脾病의 證候는 虛實, 寒熱系方面에 불과하다. 예컨대 脾陽이 虛衰하여 中氣가 不足한 것은 虛證이고 寒濕이 脾를 에워싸 濕熱이 內蘊되는 것은 實證에 屬한다. 脾虛로 因해 不運하면 水濕이 不化한다. 그러므로 脾病은 多數가 濕과 有關되고 本虛標實의 證候가 出現한다. 脾虛로 他臟을 영향주면 兼證이 出現할 수 있다.

▣ 臟腑病證

臨床에서 대개 보게되는 病證으로는 泄瀉, 胃痛, 呃逆, 嘔吐, 痰飲, 吐血, 便血 등이 있다.

[虛證]

(1) 脾陽虛裏

生冷하고 肥甘한 음식을 먹었거나 寒涼한 藥物을 過用하고 久病으로 失養되어 脾陽이 不振하고 運化가 無權되는 것이 導致된다. 面黃少華하고 感覺에 中脘이 冷하며 清水를 吐하고 먹는 것이 적으나 腹脹되며 음식이 들어가면 아주 심하고 더운 것을 마시기 즐기며 便溏하거나 肌肉이 각이고 四肢가 차며 少氣懶言하다. 舌淡하고 苔白하며 脈이 濡弱하다. 溫運中陽하여야 한다.

- 處方 : 理中湯 등이다.

(2) 中氣不足

素體氣虛하거나 勞倦이 過度하고 病이 오래되어 脾氣가 耗傷되어 升清이 無權된다. 먹는 것이 減少되고 瀨言氣短하며 四肢가 맥이 없고 腸鳴腹脹하고 大便이 溏薄하다 심하면 少腹이 아래로 당기고 脫肛하며 舌淡, 苔薄白하고 脈이 느리거나 濡細하다. 補中益氣하여야 한다.

- 處方 : 補中益氣湯 등이다.

[實 證]

(1) 寒濕困脾

涉水淋雨되고 濕地위에 앉고 누웠거나 生冷한것을 過食하였거나 內濕이 素盛되어 中陽이 遏매이고 脾의 運化가 消失되어서이다. 가슴이 답답하고 입이 찢득찢득하고 머리와 몸이 무겁고 大便이 부실하거나 泄瀉하고 舌苔가 白膩하고 脈이 濡細하다. 運脾化濕하여야 한다.

- 處方 : 胃冷湯等이다.

(2) 濕熱內蘊

時邪를 外感하거나 술에 타락되어 脾胃가 傷하고 脾의 健運이 消失되어 濕熱이 交阻되고 심하면 肝膽이 薰蒸된다. 脇脘脘悶하고 食慾이 없거나 열이 나고 입이 쓰며 마르고 身體가 무겁고 오줌이 붉고 便溏하다. 심하면 面目이 모두 누렇게 皮膚가 가렵다. 苔가 黃膩하고 脈이 濡數하다. 清熱利濕하여야 한다.

- 處方 : 茵陳蒿湯, 五苓散 등이다.

[兼 證]

(1) 脾胃不和

脾脘이 痞滿하고 살살 아프며 消化가 안되고 트림하며 심하면 嘔吐하고 便溏하며 苔薄白이고 脈이 가늘다. 治療는 益氣運中하고 調和 脾胃되게 해야한다.

■ 臟腑病證

處方으로는 香砂六君子湯 등을 쓴다.

(2) 脾腎陽虛

少氣瀨言하고 腰膝이 시금시금하고 冷하며 便溏하거나 五更에 泄瀉하고 舌淡하며 苔薄白하고 脈象이 沈細하다. 健脾溫腎하게 治療시키며 處方으로는 附子理中湯, 四神丸 등을 쓴다.

(3) 脾濕犯肺

痰涎을 咳吐하고 胸悶氣短하며 胃의 納食이 좋지 않고 苔白하며 脈이 滑하다. 燥濕化痰하게 治療하는데 處方은 二陳湯, 平胃散 등을 쓴다.

[證治]

脾病의 虛證과 實證은 相對的이다. 脾虛로 運行이 消失되고 水濕이 고여 머물러있는 것은 多數가 本虛標實에 屬한다. 本虛가 위주인 것은 健脾되게 治療하여 化濕되게 돕고 標實이 위주인 것은 반드시 祛濕되게 治療해야하며 運脾를 兼해야 한다. 脾病과 濕의 關係는 아주 密接하다. 寒熱虛實의 여러 證候를 막론하고 모두다 濕의 兼證이 出現될 수 있다. 例컨대 寒證의 寒濕困脾와 熱證의 濕不建蘊 실증의 수습내정과 허증의 脾不運濕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治療할때는 반드시 病情에 結合시켜 燥濕, 利濕, 逐水, 化濕시키는 藥을 써 濕을 없애면 脾의 運行이 저절로 回復된다. 相對的으로 脾와 胃의 病理를 古人은 “實則陽明, 虛則太陰”이라고 概說하였다. 臨床에서 나타나는 여러 證에서 脾病은 多數가 虛證과 寒證이고 脾胃는 多數가 熱證과 實證이다. 반드시 “脾胃升則健, 胃宜降則和”의 原則을 遵守하여 治療해야 한다. 臟腑의

整體觀念으로부터 分析하면 脾와 胃腸이 관계있을 뿐만 아니라 그 病理演變에도 其他臟腑와 有關된다.

예를들면 脾病이 오래간 치료되지 못하면 항상 其他臟腑에 影響이 있고, 그와 同時에 其臟에 病이 있으면 脾에 影響이 미친다.

그러므로 脾를 치료하면 其他臟腑의 病變으로 하여금 好轉되게 할 수 있고 其他臟腑를 치료하면 脾病이 回復되는데 도움을 준다.

[胃 病證]

胃는 水谷의 海洋이고 脾와 서로 表裏가 된다. 그리고 共同히 升淸하고 降濁시키는 것을 책임진다. 모든 飲食의 不節과 饑飽의 失常이거나 冷熱이 不當하면 모두다 胃의 功能에 影響될 수 있고 病變을 발생시킨다. 胃는 燥土로서 그의 本性은 潤습한 것을 즐기고 마른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一般的으로 食積鬱熱하고 목마르고 便秘 등 燥熱證은 胃病에 屬한다. 胃는 또 受納을 主管한다.

그러므로 胃의 和降이 消失되면 대개 메스껍고 嘔吐하는 證候가 나타난다. 臨床에서 늘 나타나는 胃의 病證은 胃痛, 嘈雜, 嘔吐, 呃逆(딸꾹질), 便秘, 口臭, 牙臭 등이 있다.

(1) 胃寒

胃腸이 素虛하고 飲食의 不潔이 거듭되고 生冷한 것을 過食하였거나 脘腹이 랭을 받아 寒이 胃에 凝滯되어서 病이 생긴다.

胃脘이 冷痛하고 경한者는 슬슬 아프며 重한 者는 경란이 나고, 극렬히 아프고 차지면 아픔이 더 극렬하며, 더워지면 아픔이 감소되고 口淡하고 목마르지 않으며 淸水를 토하고 딸꾹질하고 嘔吐하며 舌淡, 苔가 白滑하고 脈이

■ 臟腑病證

잡거나 뜨다. 溫胃散寒하여야 한다.

- 處方 : 良附丸, 附子理中湯, 香砂六君子湯等이다.

(2) 胃熱

胃熱의 偏盛과 情志의 鬱火가 并列되었거나 邪熱이 胃에 侵犯되고 辛熱한 음식이 過度하여 생긴다. 胃脘이 灼痛하고 呑물이나고 嘈雜하며 冷飲을 즐기고 먹지 않으면 좀 편안하거나 음식이 들어가면 바로 토하고 입에서 구린내가 나고 牙齦(잇몸)이 붓고 썩거나 出血하며 苔黃하고 舌紅하며 津液이 적고 脈이 滑數하다. 精胃泄火하여야 한다.

- 處方 : 清胃散, 藿香正氣散 등이다.

(3) 胃虛

다수가 火熱이 胃陰을 모상하는 所致다. 口술이 건조하고 식욕이 없거나 딸국질하고 대변이 건조하며, 혀가 붉고 태가 적거나 붉고 맥이 細數하다. 養胃生津하여야 한다.

- 處方 : 益胃湯, 補中益氣湯류이다.

(4) 胃實

飲食을 절도하지 않고 暴飲暴食으로 먹은 것이 얹히며 消化되지 못해 생긴다. 脘腹이 脹滿하고 먹기를 싫어하고 트림하거나 시금들뜰한 것을 嘔吐하고

大便이 상쾌하지 못하고 더러운 똥가 끼고 脈이 滑하다. 清導化滯하여야 한다.

- 處方 : 保和丸, 平胃散, 丁香半夏湯 등이다.

4. 肝膽病證

[病因]

肝은 脇의 아래에 있고 膽은 肝에 붙어 있으며 肝膽은 서로 表裏로 된다. 肝脈은 큰 발꿈치에서 始作하여 위로 올라 陰器를 循環하고 少腹을 지나 胃를 품는데 肝絡膽에 屬하고, 횡격막을 관통하고 脇肋에 베풀리며, 목구멍을 순행하여 目系를 連結하며 위로 오른다. 肝은 疏泄을 主管하는데 그 性質은 剛세고 條達을 잘하고 抑鬱을 싫어한다.

모든 精神情志의 功能調節은 肝과 密接한 관계가 있다. 肝은 藏血을 主管하므로 血量을 저장하고 調節하는 作用이 있고, 또 肝은 筋을 主管하기에 全身에 筋骨과 關節의 屈伸을 맡는다.

肝의 개규는 目에 있으므로 目は 肝血의 資양을 받아 視明한다. 만약 간기가 울결하고 氣가 멎치고 血이 엉키거나 血이 肝을 보양하지 못하면 肝脈이 항상 阻滯되어 脇痛을 초래하고 肝鬱이 오래되어 氣가 멎치고 血이 엉키면 癥瘕하고 積聚되는 것을 초래하며, 血이 엉키고 水濕이 停聚되면 氣血水가 속에 瘀結되어 鼓脹이 形成되고 濕熱이 속에 쌓이면 肝의 疏泄에 영향되어 膽液이 밖으로 넘쳐 黃疸이 形成되며 肝은 風木의 臟으로서 體陰되면 陽을 써 主升主動시키는데 만약 肝陰이 暗耗되면 肝陽이 偏亢되어 化風內動하고 淸空을 요란하거나 腎水가 素虧하고 肝이 滋養을 잃어 肝陽이 上亢되면 모두다 頭痛, 眩暈하는 것이 發生되고, 만약 肝腎陽이 下에서 虧되고 肝陽이 위로 暴脹되며, 血이 氣逆을 따라 痰火를 품고 經脈에서 橫竄하며 淸竅가 蒙폐되면 中風이 發

■ 臟腑病證

生되며 만약 寒邪가 肝脈에 侵襲되어 寒氣가 凝滯되고 經脈이 不利하면 小腹이 脹痛하고 高환을 잡아 당기며 疝氣가 形成되고 肝이 藏血하지 못하면 各種 血證이 發生할 수 있으며 肝血이 不足하여 筋脈의 補養이 消失되면 麻木, 痿瘓等 證이 초래될 수 있다.

肝과 其他臟腑는 密接히 相關된다. 肝氣가 鬱結되어 肝木이 侮上하면 肝胃가 不利하고 肝脾가 不和되는 것이 초래되고, 腎이 藏精하고 肝이 藏血하면 精血을 互生하고 만약 腎精이 不足하면 肝의 濡養이 消失되어 肝陽이 上亢되는 것을 초래하게 된다. 脾는 生血하고 心을 主血하는데 만약 心脾가 不足하면 肝血이 역시 虧虛되어 血이 筋을 補陽 못하고 血虛生風되는 것을 초래할 수 있다.

虛가 實의 두 邪分으로 肝의 病證을 概括할 수 있는데 多數가 實證이다. 實證은 肝氣, 鬱結, 肝火上炎, 肝風內動, 寒滯肝脈이 있고 虛證은 肝陰이 不足한데 그러나 實證의 風, 火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臨床에서 대개 나타나는 病證으로는 中風, 眩暈, 頭痛, 瘧證, 癲狂, 厥證, 積聚, 鼓脹, 吐血, 衄血, 耳鳴, 耳聾 등이 있다.

[實證]

(1) 肝氣鬱結

怒가 萌치면 肝이 상하게 되어 木의 候達이 消失되고 疏泄이 無權되거나 肝氣가 橫逆되어 氣機가 阻滯되고 不暢하게 되어 아프고 鬱聚되고 血行이 瘀阻된 것이 痞積이다. 脇痛하고 嘔逆하며 腹痛하고 便泄하여 便後에도 불쾌하고 積聚되고 苔薄하고 脈이 弦한 등이 그의 主要證候이다. 其脇痛은 불어나고 아파 편치않거나 아픔이 돌아다니면서 일어나고 옆으로 돌릴수 없다. 嘔逆하면 트림이 빈번하고 신물을 嘔吐한다. 황녹색의 쓴물을 嘔出한다. 腹痛便泄과

便後에도 不快한 特點은 少腹이 아파 편치 않고 排出後에도 아픔이 減少되지 않는데 이것은 매번마다 情志가 不遂하여 發生한다. 積聚의 部位는 脇아래에 있고 癥積은 左쪽 또는 右쪽에 있거나 聚散이 正常的이 되지 못하여 脹痛하거나 刺痛한 것이 때때로 감촉된다. 이외 성을 잘내고 食慾이 不振한 등이 出現하게 된다. 疏肝理氣, 破積散聚하여야 한다.

- 處方 : 柴胡疏肝散, 失笑散, 小柴胡湯等이다.

(2) 肝火上炎

肝膽의 疏泄이 無權되어 氣가 멍치어 火로 되고 火가 흩어져 氣가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하거나 머리꼭대기 까지 요란시킨다. 脅痛, 嘔吐, 眩暈, 頭痛, 狂怒, 耳鳴, 耳聾, 目赤, 吐衄, 舌의 변두리와 끝이 붉고 苔黃하거나 乾膩하고 脈象이 弦數한 등이 그의 主證이다. 그의 脅痛은 지지는 듯이 아프고 변열증이 나며 쓴 물이거나 黃水를 嘔吐한다. 현운과 두통으로 머리가 어지러워 지체할 수 없고 筋脈이 뛰는 것이 自覺되며, 이마에 熱이 나고 칼로 베는 듯이 아프거나 터지는 것 같이 아프다. 耳鳴, 耳聾은 모두 暴作인데 울리는 소리는 海潮소리와 같은데 나다가 나지 않으며 눌러도 減少되지 않는다. 目赤은 多數가 暴痛 또는 붓는 것을 겸한다. 吐衄은 역시 감각이 暴作하는데 血이 위로 솟는 量이 많아 입으로 나온다. 이외 大便이 乾燥하고 小便이 熱澁하고 黃赤色이며 面赤하고 熱이 나고 입이 쓰고 마르른 등이다. 瀉肝泄膽精熱하여야 한다.

- 處方 : 龍膽瀉肝湯, 小柴胡湯, 清肝湯 등이다.

■ 臟腑病證

(3) 肝風內動

肝의 氣가 火로 되어 陽氣가 暴脹되고 火가 氣를 따라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며 絡道를 橫逆하고 血이 氣를 따라 上升하여 머리꼭대기 까지 솟아 오르게 된다. 이것이 肝風內動의 病因이다. 昏厥, 痙攣, 麻木, 眩暈, 頭痛, 舌體가 비뚤어지고 顛動하며, 舌質이 붉고 苔가 薄黃하며 脈이 弦數한 等은 그의 主證이다. 그의 昏厥은 갑자기 어지러워 넘어지고 人事不省하거나 油搐또는 吐涎한다. 痙攣의 表現은 목이 뻣뻣해지고 四肢가 움츠러들며 屈伸할 수 없고 角弓이 反脹한다. 麻木하여 手足, 얼굴, 입술等 部位에 개미 기어가는 것 같다. 眩暈, 頭痛은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흐리며 걸음걸이가 들떠 있는 것 같으며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이 아프다. 이외 昏厥후 입과눈이 비뚤어지고 말을 더듬고 半身不遂等의 證이 出現한다. 平肝熄風潛陽하여야 한다.

- 處方 : 天麻鉤藤飲 등이다.

(4) 寒滯肝脈

外感된 寒邪가 厥陰의 經脈에 侵入하여 肝氣가 不暢하고 絡脈痺阻하다. 少腹이 脹痛하고 高환이 아래로 처지고 불어나거나 陰囊이 쏠아들고 舌이 滑潤하여 苔白하고 脈象이 沈弦하거나 뜬 것이 그의 主證이다. 少腹의 脹痛은 항상 高환을 옆으로 처지게 당기어 劇痛하게 하는데 차지면 심하고 더워지면 차다. 陰囊이 收縮하면 厥陰에 寒이 뭉치게 되어 少腹의 脈을 收引하게 된다. 그러므로 多數는 少腹의 脹痛과 同時에 나타난다. 이외 形態가 虛怯하고 蹙縮되는 것을 볼 수 있다. 溫經暖肝하여야 한다.

- 處方 : 暖肝煎 등이다.

[虛 證]

(1) 肝陰不足

肝은 剛臟으로서 腎水에 依賴하여 補養한다. 例컨대 腎陰이 不足하면 水가 涵木하지 못하거나 肝鬱이 火로 變하여 火가 盛하고 陰이 傷하게되면 肝陽이 上亢하고 肝風이 內動하는 것이 초래된다. 眩暈하고 두통, 耳鳴하고 耳聾하며, 麻木, 震顫, 雀盲하고, 舌質이 붉고 津이 적으며, 苔가 적고 脈이 細弦數 등이 主證이다. 眩暈頭痛은 頭目이 昏眩하여 넘어질 것 같고 어지럽고 터지는 것 같이 아프며 멎지 않는다. 耳鳴, 耳聾은 점차 생기고 울리는 소리가 微低하여 經常的으로 다르며 누르면 감소된다. 麻木은 肢體가 감각이 없는 것 같고 문지르면 시원한 감이 든다. 震顫은 肢體의 肌肉이 潤動하거나 떨리는 것이 自覺될때도 있고 알지 못할때도 있는데 심한 者는 四肢筋에 경란이 일어난다. 雀目은 두 눈이 건조하고 텅텅하며 밤에는 視力이 많이 감소되거나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이외 面部가 화끈달고 오후에는 불이 붉으며, 입과 목구멍이 마르고 잠이 적으며 꿈이 많은 症狀이 나타날 수 있다. 柔肝滋腎, 育陰 潛陽하여야 한다.

- 處方 : 實煎또는 杞菊地黃湯 등이다.

[兼 證]

(1) 肝氣犯胃

胸脘이 답답하고 때로는 아프며 두 옆구리가 아프고 消火되지 않으며, 트림하면 신물이 나오고 舌苔가 薄黃하며 脈이 弦하다. 治療하는데는 泄肝和胃시

■ 臟腑病證

켜야 하고 藥은 四逆散에 左全丸을 습한 것을 쓴다.

(2) 肝脾不和

食慾이 없고 배가 불어나고 腸에서 소리가 나며, 便瘡, 苔薄하고 脈이 弦緩하다. 調理肝脾되게 치료하는데 逍遙散등을 쓴다.

(3) 肝膽不寧

허기와 번열증이 나고 잠을 잘 수 없으며 또는 무서운 꿈에 놀라며, 일에 부딪히면 잘 驚恐하고 숨이 차며 맥이 없고 視力이 떨어지며 입이 쓰고 苔가 薄白하며 脈이 弦細하다. 養肝清膽寧神되게 치료하는데 酸棗仁湯 등을 쓴다.

(4) 肝腎陰虛

面色이 憔悴하고 두 광대가 붉으레하고 머리가 아찔하고 눈이 건조하며, 허리와 무릎이 시금시금하고 맥이 없으며, 목구멍이 마르고 아프며, 식은 땀이 나고 五心이 煩熱하거나 大便이 艱澀하며, 男子는 遺精하고 女子는 月經이 調節되지 않거나 白帶가 나오며, 舌이 붉고 苔가 없으며 脈이 細하다. 滋陰降火하게 치료하는데 大補陰등의 藥을 쓴다.

[證 治]

肝은 剛臟으로서 春木에 屬하고 風을 主管한다. 성질이 升發을 즐긴다. 그러므로 肝病의 多數는 陽亢의 證候로 나타난다. 肝의 寒證은 寒이 少腹의 厥陰經脈에 凝聚된 것이 위주이다. 肝病의 實證에서 肝氣의 鬱結, 肝火의 上炎,

肝風 內動의 根源은 모두 한 根源이다. 多數는 情志의 鬱結로 因해 餘有의 肝氣가 火로 變해 위로 솟기 때문이다. 三者의 關係는 極히 密接하여 명확하게 나눌 수 없으므로 臨床에서 반드시 主次를 掌握하여 證候에 따라 施治해야 한다. 肝風의 內動은 巔項으로 솟아 오르는 것과 經絡 옆으로 순서없이 돌아다니는 두가지 不同한 것이 있다. 솟아오르는 者는 熄風潛陽시켜야하고 옆으로 돌아다니는 者는 和結熄風시켜야 하는데 痰이 끼여 있으면 滌痰시키는 것을 겸해야 한다. 實證이 오랫동안 連착되면 容易하게 肝陰이 耗傷되어 本虛標實이 形成되는데 臨床에서 아주 많이 나타난다. 辨證時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肝病의 虛證은 多數가 腎陰의 不足으로 因해 精이 血로 變化되지 못하여 肝陰의 不足과 陽亢이 목에 요란되는 것이 초래된다. 반드시 實證에 對照하고 詳細히 鑑別해야 한다. 그 病機와 腎陰의 결핍은 極히 밀접한 關係가 있다. 그러므로 臨床에서 많이는 肝과 胃를 同時에 治療하는 治法을 採取한다. 經常的으로 쓰는 肝의 治法으로는 疏肝, 清肝, 瀉肝, 平肝, 鎮肝, 養肝, 柔肝, 温肝 등이 있다. 疏肝은 肝鬱을 疏散시키고, 清肝은 肝熱을 淸解시키고, 瀉肝은 肝의 火를 瀉除시키는데 그의 作用은 淸肝과 相似하나 程度上에서 淸肝보다 重하다. 平肝하는 者는 肝의 風을 平熄시키고, 鎮肝은 肝의 風을 鎮定시키는데 모두다 肝風內動에 適用된다. 그러나 藥을 선택하는데는 좀 다르다. 鎮肝은 金石重鎮하는 것을 많이 선택하여 쓴다.

養肝者는 肝陰의 不足을 滋養시키고, 柔肝者는 柔潤한 藥으로 肝의 過한 건조를 克制시킨다. 養肝과 柔肝은 性質上에서 相似하나 前者에 쓰는 藥은 滋養시키는 데 치중하고, 後者는 柔緩시키는 데 치중하여 藥을 쓴다. 温肝者는 温熱한 藥物을 使用하여 肝의 機能을 振奮시킨다. 王旭高가 말한 “如肝有寒, 嘔酸上氣, 宜温肝, 肉桂, 吳茱, 川椒” 등이다.

■ 臟腑病證

[膽의 病因]

膽은 肝에 붙어있는데 그 經脈은 肝에 잇닿았다. 膽에는 맑고 깨끗한 汁을 저장하고 있는데 其他轉化한 臟腑에 들어있는 濁質과는 不同하다. 그러므로 膽은 六腑에도 屬하고 奇恒한 腑에도 屬한다. 膽의 性格은 剛直하다. 그러므로 病理情亢下에서 多數는 火가 旺盛한 證으로 表現된다. 火熱이 津液을 달여 痰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膽病은 痰을 많이 兼한다. 痰의 火가 鬱遏되면 늘상 心神을 요란시킨다. 그러므로 辨證하고 施治할 때 泄膽化痰에 主意해야 할 뿐만 아니라 清心安神시켜야 한다. 늘상 보는 病證은 驚恐, 不寐, 耳鳴, 耳聾, 眩暈 등이 있다.

(1) 膽實證

多數가 情志의 鬱結로 인해 氣가 鬱滯되어 痰이 생기고 痰의 熱이 속에서 요란하며 膽이 疏泄하는 것을 잃게 되고 胃의 和降이 소실되어 所致된다. 눈이 아찔하고 귀를 먹으며 가슴이 불룩하고 옆구리가 아프며, 입이 쓰고 쓴물을 嘔吐하며, 성을 잘내고 변열증이 나며 잠을 자지 못하고 놀라서 두려워서 마음이 두근거리고苔가 黃膩하며 脈이 弦滑하다. 清化痰熱, 相胃降逆하여야 한다.

- 處方 : 黃連溫膽湯 등이다.

5. 腎病證

[病因]

腎은 左右에 각각 하나로서 命門에 달려 있는데 元陰과 元陽이 內藏된 水火의 臟腑이다. 그의 脈絡은 膀胱에 잇닿았으며 膀胱과 서로 表裏로 된다. 腎은 精을 主藏하는 人體의 生長, 發育, 生殖卽生命活動의 根源이다. 그러므로 先天의 本이라고 한다. 腎은 五液을 主管하여 體內 水液의 平衡을 維持한다. 腎은 骨을 主管하고 골수를 생성하여 骨과 이빨로 하여금 堅固히 하게하고 뇌를 발달시키고 精力을 充足케 한다. 腎은 其他臟腑와의 관계가 역시 極 密接한바 腎은 納氣를 主管한다. 氣의 根은 腎에 있는데 肺에 歸結된다. 그러므로 肺의 吸氣와 肅降을 돕게되고 腎水가 心에 上濟되고 心火가 腎에서 下交되어 水火가 既濟되면 陰陽이 平衡된다. 腎은 先天의 本이고 脾는 後天의 本으로서 脾의 健運은 腎陽의 溫熱에 의탁하고 腎氣의 充足은 또 脾胃의 補養이 需要된다. 肝과 腎은 下焦에서 同居하고 肝木은 腎水의 濡養이 수요되고 의탁하여야 하는데 腎精이 充足하면 肝도 滋養을 얻게 된다. 膀胱은 津液의 貯蓄을 主管하고 化氣行水한다. 그러나 膀胱의 氣化는 腎氣의 蒸騰이 수요된다.

만약 稟賦가 薄弱하고 勞倦이 過度하고 房事를 不節하여 生育이 많고 久病하고 補養하지 못하였으면 “五臟之傷, 窮必及腎”(五臟이 傷하게 되면 꼭 腎에 미치게 된다)되고 精氣가 損傷되어 多種한 疾病이 생긴다. 만약 腎陽이 虛勢하여 關門이 不利하고 氣는 行水시키지 못하여 水濕이 內聚되거나 肌膚에 넘쳐흐르면 飲은 種으로 된다. 下元이 虧損되고 命門이 火衰되면 陽萎와 五更에 泄瀉하게 된다. 腎氣의 虧損, 封藏의 無權, 固攝의 失司는 대개 滑精, 早泄하고 오줌이 나오는 것도 모르는 證이 초래된다. 氣가 元에 歸還되지 않고 腎이 納氣하지 못하면 喘逆, 短氣하게 되고 일에 상하여 오래되어 眞陰이 虧虛되고 水가 涵木하지 못하여, 肝腎이 不足하면 眩暈, 耳鳴 및 下消等の 病證이 초래

■ 臟腑病證

될 수 있다. 腎陰이 耗傷되어 陰이 陽을 돕지 못하고 心火가 위로 올라 心腎이 不交하면 虛煩不寐하고 心悸健忘하고 潮熱하고 식은땀이 나며, 심지어 邪宜 夢遺等證을 초래할 수 있다. 腎陽이 衰弱되어 氣化가 州都에 미치지 못하면 癱閉되는 것을 초래할 수 있다.

腎은 先天의 本이기 때문에 眞陰을 저장하고 元陽을 包含하고 오직 固藏하는데만 적합하고 泄露하는데는 適合하지 않다. 그러므로 腎病은 多數가 虛證이다. 辨證에서 陰虛가 陽虛를 억압하는가를 辨別해야 한다. 陽虛에는 腎氣가 不固하고 腎이 納氣하지 못하고 腎陽이 不振하고 腎虛하여 水窞되는 것이 包括된다. 陰虛에는 腎陰이 虧虛하고 陰虛火旺한 것이 包括된다. 臨床에서 늘 보는 腎의 病證은 消渴(下消), 水腫, 癱閉, 遺精, 陽萎, 腰痛, 耳鳴, 耳聾, 眩暈, 泄瀉 등이 있다.

[陽 虛]

(1) 腎氣不固

지나친 일로 상하고 久病하고 失養하여 腎氣가 虧損되어 그의 封臟과 固攝의 權이 消失되어서이다. 面色이 淡白하고 허리와 등에 맥이 없고 聽力이 減退되고 맑은 오줌을 빈번히 싸는데 심하면 멎지 않으며, 滑精早泄되고 小便이 끝난후에도 한방울 한방울 떨어지고 舌淡苔薄白하고 脈이 細弱하다. 固攝腎氣하여야 한다.

- 處方 : 大補元煎, 秘精湯, 鹿茸大補湯 등이다.

(2) 腎不納氣

일에 腎氣가 傷하였거나 久病으로 氣虛되어 氣가 元에 歸還되지 않고 腎이

攝納의 權이 消失되어서이다. 숨이 가쁘고 혈떡거리는데 움직이면 아주 심하여지고 咳逆하고 땀이 나며 항상 기침이 심하여 小便이 저절로 나오고, 얼굴이 희고 부으며 舌淡苔薄하고 맥이 虛弱하다. 納氣歸腎하여야 한다.

- 處方 : 八參胡桃湯 또는 參蚘湯 등이다.

(3) 腎陽不振

稟賦가 薄弱하고 久病이 낫지 않거나 房事에 腎이 傷하여 下元이 虧損되고 命門의 火가 쇠약하여진 것이다. 面色이 淡白하고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다리가 맥이 없으며 陽萎되고 머리가 아찔하고 耳鳴되며 몸이 차고 오줌이 빈번하며 舌淡白하고 脈이 沈弱하다. 溫補腎陽하여야 한다.

- 處方 : 右歸丸 또는 金匱腎氣丸 등이다.

(4) 腎虛水冷

稟賦가 素虛하고 久病이 補陽되지 못하여 腎陽이 虧損되고 水液을 溫化하지 못하여 水邪가 범람하고 上逆되는 것을 초래하거나 肌膚로 넘친다. 水가 肌膚를 넘쳐나면 全身이 붓는데, 下肢가 더 심하고 누르면 마치 진흙을 누르는 것 같고, 허리와 배는 터지는 것 같으며 오줌이 적다. 水乏하여 痰이 되면 咳逆上氣되고 痰은 많고 稀薄하며, 움직이면 喘息하고 舌苔가 淡白하며 脈이 沈滑하다. 溫陽化水하여야 한다.

- 處方 : 眞武湯 또는 濟生腎氣湯 등이다.

■ 臟腑病證

[陰 虛]

(1) 腎陰虧虛

房事를 不節하고 일을 과도하게 하였거나 久病後 眞陰이 損傷되어서이다. 몸이 虛弱하고 머리가 아찔하고 耳鳴하며 잠을 적게 자고 健忘하며,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다리가 맥이 없으며, 또는 遺精하고 입이 마르고 舌이 붉고 苔가 적으며 脈이 細하다. 滋養腎陰하여야 한다.

- 處方 : 六味地黃湯, 八味湯등이다.

(2) 陰虛火旺

생각대로 妄動하거나 熱病後 腎陽이 損傷되어 陰虛로 內熱이 생기고 水가 虧損되면 火가 떠 돈다. 불이 붉고 입술이 붉으며 潮熱盜汗하고 허리와 등이 시큰시큰 아프고, 번열증이 나 자지 못하고 陽이 興하고 꿈에 遺精하며, 입과 목구멍이 아프고 마르며 또는 咳嗽하고 小便이 노랗고 大便이 굳고 舌質이 붉고 苔가 적으며 脈이 細數하다. 滋陰降火하여야 한다.

- 方劑 : 知柏知黃湯 등이다.

[兼 證]

(1) 腎虛脾弱

大便이 묽고 消火되지 않으며, 헛배 부르고 먹을 수 없으며, 피곤하고 몸이

차며, 四肢가 맥이 없고 舌淡하고 苔薄하며, 脈이 무겁고 뜨다. 補火生土되게 치료해야 하는데 附子理中湯, 四神湯등의 약을 쓴다.

(2) 腎水凌心

가슴이 두근거리고 水腫이 나타나고 胸腹이 脹滿하며, 기침하고 숨이 가쁘고 똑바로 눕지 못하며, 손톱과 입술이 靑紫色이고 四肢가 싸늘하며 舌痰苔薄하고 脈이 虛數하다. 水氣를 溫化되게 치료하는데 眞武湯 등을 쓴다.

[證治]

一般的으로 말하면 腎은 表證과 實證이 없다. 腎의 熱은 陰虛의 變化에 屬하고 腎의 寒은 陽虛에 屬하는데 臨床에서 반드시 主意하여 掌握해야 한다. 一般的으로 腎虛의 證候는 陰虛와 陽虛 두 가지로 나눈다. 總體的인 치료 原則은 腎氣不足, 不可伐其有餘"인데 陰虛한 者는 辛燥하고 심하게 苦寒한 것을 금하고 甘潤益腎에 적합한 약으로 補陰配陽되게 하여 虛火로 하여금 不降되게 하여 陽이 陰에 歸結되게한다. 이것이 所謂 "壯水之主, 以制陽光"이다. 陽虛한 者는 涼潤하고 腎散한 것을 금하고 甘溫益氣시키는 物品을 적당히 써서 補陽配陰되게 하고 沈陰으로 하여금 헤쳐지고 陰이 陽에 縱屬되게 한다. 所謂 "益火之源, 以消陰翳"란 것이다. 陰陽이 모두 虛하면 精氣가 다 傷하게 된다. 이 때는 陰陽을 같이 補하는 것이 적당하다. 腎陰이 허한 자는 때때로 火가 偏旺되는 것이 초래되는데 이것이 陰虛로 인해 內熱이 생기는 變化이다. 治法은 모두 滋陰시키는 것을 爲主로 하고 相火를 清泄시키는 것도 보태어 치료한다. 예컨대 地柏地黃湯등이다. 腎陽이 허한 자는 溫腎補火하는 原則下에서 반드시 精이 補充되고 髓가 增加되게 하는등 혈육을 돕는 제품을 써 生화의 源천으로 되게 해야 한다. 腎과 其他 臟腑 와의 관계는 비상히 밀접하다. 예컨대 腎陰

■ 臟腑病證

이 不足하면 水가 涵木하지 못하고 肝膽이 上亢되는 것이 초래되거나, 子가 母의 氣를 훔치면 肺음이 損傷되고 水가 상승하지 못하면 心腎이 不交되는 것이다. 腎陽이 虧虛하게 되면 또 火가 土를 產生하지 못하는 것이 쉽게 形成되어 脾陽이 衰弱된다. 이런 病症은 腎의 治療와 其他 臟腑의 治療를 통하면 病情回復에 대해 아주 중요한 意義가 있다.

[膀胱病症]

- 病因 : 膀胱은 少腹에 처하여 있다. 그 외 脈絡은 腎에 닿았고 主要한 생리공능은 津液을 貯蓄하고 和氣시켜 水를 循行시킨다. 그러므로 병리의 主要한 표현은 氣化無權이다. 腎은 水와 津을 주관하기에 膀胱과 相互表裏로 된다. 腎氣가 불화되면 능히 膀胱의 기화에도 영향된다. 이것이 바로 膀胱虛症의 主要한 病이다. 膀胱의 實熱病症은 他臟의 移熱로 소치되거나 本腑의 濕熱이 蘊結되어 형성된다. 대개 나타나는 病證은 小便이 순조롭지 않고, 癃閉, 遺尿, 또는 小便의 控制能力이 消失한 등이 있다.

(1) 虛寒

主要로 年歲가 많거나 久病하고 과로하여 腎氣가 虧虛하고 固攝無權이 초래되어 膀胱의 制約能力이 소실된다. 小便이 빈번하고 小便후에 오줌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遺尿하거나 小便이 한방울 한방울 떨어지며 시원치 않고 排出이 힘이 없으며, 舌이 윤탁하고 脣가 얇으며 脈이 沈細하다. 固攝腎氣하여야 한다.

- 處方 : 桑螵蛸散 등이다.

(2) 實 熱

多數가 外感된 濕熱 의 邪가 膀胱에 蘊結되거나 飲食의 不節로 濕熱이 中焦에 溫結되고 膀胱에 下注된 所致다. 오줌이 빈번하고 급하며 아프고 混濁한 黃赤色이거나 尿血 또는 오줌에 砂石이 있고 열이 나고 허리가 아픈 것이 同伴되며 答가 黃膩하고 脈이 빠르다. 清利濕熱하여야 한다.

- 處方 : 八正散, 禹功散等이다.

◆ 以外에는 省略하고 끝으로 本人 意思를 간단히 표하고자 한다. ◆

韓藥은 現在 洋醫學의 發達로 인하여 대부분의 患者들이 發病하면 우선 洋藥을 服用하고 治療되지 않으면 다시 病院治療를 받다가, 그래도 不治일 경우 뒤늦게 韓藥을 服用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病이 慢性化 되었을 때 治療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初期에 韓方治療를 받게되면 間斷히 治療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藥에대한 耐性도 적을 것이며 더불어 人體에 미치는 影響이 없을 것임을 밝혀둔다.

(한일한약방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401-4)